

2022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3166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3. 제출일자 : 2022년 3월 17일
4. 회부일자 : 2022년 3월 23일

II.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 제안이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과 방역체계 강화,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해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2.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개요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5조 3,688억 6천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44조 2,449억 2천 8백만원에
대비하여 2.5%(1조 1,239억 4천 1백만원) 증가함.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2조 1,964억 9천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8,311억 5천 1백만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3조 1,723억 7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2,927억 9천만원) 증가함.

<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
계	45,368,869	44,244,928	1,123,941	2.5
일반회계	32,196,499	31,365,348	831,151	2.6
특별회계	13,172,370	12,879,579	292,790	2.3

3.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가. 세 입

-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기정예산(3,304억 1천 7백만원) 대비 87억 8천 8백만원(2.6%)이 증가한 3,392억 5백만원이 편성됨.
- 일반회계의 세입은 증감이 없고,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부터 87억 8천 8백만원이 전입해(7.5% 증가) 1,250억 8천 4백만원이 편성됨.

< 기획조정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 감 (C=A-B)	증감율
합 계	339,205	330,417	8,788	2.6
일반회계	214,121	214,121	-	-
균형발전 특별회계	125,084	116,296	8,788	7.5

나. 세 출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8,783억 5천 8백만원) 대비 87억 9천 9백만원 (1.0%) 증가한 8,871억 5천 7백만원임.

< 기획조정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 감 (C=A-B)	증감율
합 계	계	887,157	878,358	8,799	1.0
	행정운영경비	1,031	1,031	-	-
	재 무 활 동	395,863	387,075	8,788	2.3
	사 업 비	346,313	346,313	-	-
	예 비 비	143,949	143,938	11	0.01
일반회계	계	643,878	635,079	8,799	1.4
	행정운영경비	1,031	1,031	-	-
	재 무 활 동	157,496	148,708	8,788	5.9
	사 업 비	346,313	346,313	-	-
	예 비 비	139,037	139,026	11	0.01
도시개발 특별회계	계	242,274	242,274	-	-
	재 무 활 동	238,367	238,367	-	-
	예 비 비	3,907	3,907	-	-
균형발전 특별회계	계	1,005	1,005	-	-
	예 비 비	1,005	1,005	-	-

○ 세출예산의 주요 변동사유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는 예비비 1천 1백만원과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87억 8천 8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 도시개발특별회계와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증감내역이 없음.

Ⅲ.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상원)

1.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및 규모

- 2022년도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상황의 개선과 내수 경제의 회복, 수출·투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완만한 경제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었음.
- 그러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내수 회복세가 주춤하고 원자재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로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음.
- 두바이유 가격은 전년 말 73.2달러에서 올해 3월 24일 기준 115.6달러로 급등하면서 소비자물가도 3.7%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함.
- 소매판매액지수¹⁾는 높은 물가상승으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고, 민간소비가 위축되면서 전년 말 2.2%에서 2022년 1월 △1.9%로 감소하였음.
- 지난 2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오미크론 확산과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의 성장 둔화로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0월(3.3%)보다 0.3%p 낮춘 3.0%로, 2023년은 2.9%로 하향 조정한 바 있음.

1) 소매판매액지수 : 소비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는 지표로,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전문소매점 등에서 매월 판매금액을 조사하여 작성하는 통계임.

- 이에 정부와 국회는 악화된 방역상황과 강화된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가중된 민생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16조 9천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을 확정 한 바 있음(국회 본회의. 2. 21. 의결).
- 2차 방역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의 현금 지원사업(13조 5천억원)과 생활지원비, 자가진단키트 지원 등 기타사업 (2조 8천억원), 예비비(6천억원) 등으로 편성됨.
- 그러나 최근들어 오미크론 확진자가 일평균 60만명을 정점으로 확산되고 물가불안·금리상승 등의 여파가 겹치면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검사·치료체계 전환으로 인한 방역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따라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된 자산·소득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상공인 등 경제 취약계층의 보호와 고용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이에 서울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기정예산 대비 1조 1,239억 4천 1백만원 증액(2.5%)된 45조 3,688억 6천 9백만원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야별 편성 현황 >

(단위 : 억원)

민 생 · 일 상 회 복	- 경영위기업종 일상회복 지원(매출감소 소상공인 7.7만개소, 개소당 백만원 지원) - 소기업·소상공인 종사자 대상 2만명 규모 고용장려 및 고용유지 지원 - 청년 재무상담(영테크) 4,500명 및 대중교통 요금 지원 75,000명 확대 - 대중교통 재정지원(지하철 1~8호선 및 시내버스 각 1천억원, 마을버스 1백억원) - 문화·여가 향유 기회 확대, 하천 유지보수 등 녹색 여가공간 기반 조성	4,248
방 역	- 감염취약계층 904천명 대상 자가검사키트 530만개 제공 - 재택치료자 상담센터 4개소, 소아 전담 상담센터 1개소 설치·운영 등	2,061
안 심 · 안 전	- 국공립어린이집 20개소 확충, 외국인 아동 보육료 한시 지원 등 - 서민주거 안정 기반마련(민간토지 활용 상생주택 70호 등) - 중대재해 예방 위한 도로시설물, 하천, 공원 등 안전관리 강화 등 9호선 전동차 구매, 주택가 주차장 추가조성 등 교통인프라 조성	1,130
의 무 경 비 등	자치구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3,800

2.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가. 세 입

- 2022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3,392억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7억 8천 8백만원(2.6%)을 증액함.

<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 추경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 감 (A-B)	증감률 (%)	산 출 내 역
합 계	339,205	330,417	8,788	2.6	
일반회계	214,121	214,121	-	-	
균형발전특별회계	125,084	116,296	8,788	7.5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국고보조금 반환

- 일반회계의 세입 증감은 없고,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87억 5천 3백만원)과 청소년시설 기능보강의 국고보조금 반환(3천 5백만원)에 따른 지출금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게 됨.

나. 세 출

- 2022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8,871억 5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7억 9천 9백만원(1.0%)을 증액함.

<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 추경안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증감사유
합 계	887,157	878,358	8,799	
예 비 비	139,037	139,025	11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 조정을 위한 예비비 증액
균 형 발 전 회 계 전 출	117,093	108,305	8,788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8,753백만원) 및 국고보조금 반환(34백만원)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전출

- 예비비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을 위해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규모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1천 1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과 청소년시설 기능보강의 국비 집행잔액 반환에 따른 것임.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2021년에 승인된 확충사업(13개소)에 대한 2022년도분 국비 대응 시비 51억 1백만원과 2022년 사업예산의 과소 편성으로 인한 부족분 36억 5천 2백만원을 포함한 87억 5천 3백만원임.
- 국비 대응 시비 편성(51억 1백만원)은 2021년부터 시작된 확충사업의 2022년도 국비의 확정내시가 지연되면서(2021.12.29. 확정내시) 2022년 예산안에 시비를 대응 편성할 수 없어 추경에 반영하게 됨.
- 사업비 부족분(36억 5천 2백만원)은 2022년도 예산안에 과소편성되어 (131억 9천 6백만원, 국·시비 비율 1:1) 의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 증액되었 으나(23억 2천 9백만원),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간의 어린이집 신축 비용단가 차이²⁾ 등으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게 됨.

<최근 3년간 국·시비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국시비 집행비율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2019년	71,863	12,989	58,874	69,934	12,989	56,945	국비1:시비4
2020년	77,664	12,614	65,050	77,185	12,614	64,571	국비1:시비5
2021년	40,000	8,250	31,750	38,283	7,773	30,510	국비1:시비4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비현실적인 비용단가로 국비보다 시비가 과다 편성되어 왔으나, 2022년 예산안에는 과소 편성

2) 일례로 어린이집 신축비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지방비를 포함해 1,676천원/㎡이나 서울시 기준은 3,303천원/㎡으로 큰 차이가 남.

한 후 추경에서 부족분을 편성함으로써 예산편성의 예측가능성을
연례적으로 저하시키고 있음.

- 청소년시설 기능보장은 시립청소년수련시설의 노후 설비에 대한 적기 보수·보강을 하는 사업으로, 2019년 총 24개소(총 63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잔액(1억 4천만원) 중 국비 3천 5백만원의 반환이 누락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됨.

<2019년 청소년시설 기능보장 사업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반납액	불용액	미반납금액 (추경예산)
합 계	653	513	140	15	125	34.5
국비	192	150	42	7.5	34.5	34.5
시비	461	363	98	7.5	90.5	-

- 국고보조금 반환은 2020년부터 2021년말까지 코로나19로 인해 해마다 여러 차례 추경이 실시되어 반환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예산 집행과 사후정산 처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담당 조사관	연락처
김성만	2133-8055